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유아부(2-3세) / 본당 2층 영아부실, 온라인
11:00AM
- 유치부(4-5세) / 유치부실(구식당), 온라인
11:00AM
- 유년부(1-3학년) / 임마누엘, 온라인
11:00AM
- 초등부(4-6학년) / 체육관, 온라인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온라인
11:00AM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온라인
9:00AM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온라인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비전채플, 온라인
2: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빌립보서 3:1-3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14:13-21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13) 개조심

4부 Rev. Kenneth Son 손경일 목사
돌파하라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 안에 있는 나에게(찬455/새370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믿음 in '21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매 흉내 내는 까마귀

Raven that Imitates Hawk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매년 8월이 되면, 베델의 풀타임 목회진은 다음 해 사역을 가능하는 정책 회의를 갖습니다. 내년 목표도 정하고, 주요한 변화에 발 빠르게 움직이며 여러 사역들을 검토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모임입니다. 이번 모임은 특별히 팬데믹 이후의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가장 불투명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변화에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모임으로 재작년에 이어 시애틀에서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가 팬데믹 기간 로컬에 갇혀 지내다시피 하다가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타는 비행기 여행은 체크인 과정도 어색할 정도로 긴장감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이 모임을 위한 많은 성도님의 따뜻한 배려, 격려와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의 중, 시애틀 인근 산들을 찾아 베델 목회진이 팬데믹 기간에 늘 하던 하이킹을 했습니다. 레이니어산(Mt. Rainier)과 허리케인 릿지 힐(Hurricane Ridge Hill)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에 절로 찬양이 나왔습니다. 또한, 사슴, 다람쥐, 비버, 까마귀 등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특별히 산 정상에서 자기 세상인 양 하늘을 나는 까마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은 모자를 움켜쥐고 걸어야 할 정도로 센 바람이었는데, 한 까마귀가 퍼덕거리는 날갯짓보다는 유유히 날개만 펴고 맞바람에 날다가 떨어지고, 또 공중에 올라 날개를 있는 힘껏 펴고 맞바람에 비상하다가, 다시 곤두박질하기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재밌게 지켜보던 우리 중 한 분이 이런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까마귀들은 자기들이 매인 줄 알아!" 이 말에 우리 모두 한바탕 웃었는데, 매 흉내 내는 까마귀가 정확한 크리스천의 정체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까마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저 높은 창공을 품나게 나는 매처럼 구원받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직 옛 습관들이 남아 있어 자주 곤두박질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자녀 삼으시고 계속 매처럼 날개를 펴고 비상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오늘도 거센 고난과 유혹의 바람이 불어대지만, 우리는 산꼭대기에서 날개를 펴고 매 흉내를 내던 까마귀처럼 자주 곤두박질쳐도 다시 용기 있게 맞바람에도 날개를 펴야 합니다. 자동차 다니는 아스팔트 위에서 총총 뛰어다니며 죽은 다람쥐나 먹는 까마귀가 아니라,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예수 믿는 자의 자존심으로 푸른 하늘을 믿음의 날개를 펴고 유유히 비상하기를 다짐합니다.

Our Bethel full-time pastors meet offsite every year in August to plan for the following year. It's a meeting to decide on our next year's motto, examine every ministry, assess major changes and make plans. Like the year before, this year's meeting was held in Seattle. In this uncertain time, the meeting was to prepare and plan for creative and active ministries for post-pandemic phase. Most of our pastors stayed locally during pandemic. They were nervous and excited to get on an airplane for the first time in almost 2 years. Even the checking in process felt strange.

I am especially thankful to many church members for their thoughtful encouragement for this meeting.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convey a special thanks. During our stay, as we have done through pandemic, we took time to hike some of the mountains near Seattle. Being in the creation of God's beautiful nature, praises came out naturally as we hiked Mt. Rainier and Hurricane Ridge Hill. It was amazing how deers, squirrels, beavers, and ravens approached us without fear. We were impressed by ravens flying the sky as if it's their world at the top of the mountain. Wind was so strong on the mountains that we had to hold our hats as we walked. Ravens spread their wings and glided through the sky without moving their wings until a gust of wind would make them fall. Then they would spread their wings again to soar with all their might through the wind only to fall again, and kept repeating. As we were watching this in amusement, someone said, "ravens here think they are hawks!" We all had a good laugh. Then I thought that these ravens imitating hawks are exactly like Christian identity.

We were like ravens, who had no choice but to die for our sins. But we were restored in the image of God, like soaring hawk, we have been saved as His masterpiece. We still have old habits that cause us to fall. Yet God still makes us His heavenly children and continues to encourage us to spread our wings and soar like hawks. There are great hardships and temptations today like gusty winds. Even though we spread our wings at the top of the mountain and often fall like the ravens, we again muster the courage to spread our wings in the face of gusty wind. Unlike the ravens that hop on asphalt roads eating carcasses of squirrels, uncompromising to sin, we must have pride in our faith in Jesus and promise to spread our wings of faith to soar through the blue sky.

주일설교시리즈
빌립보서 강해 -제13편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

개조심
(빌 3:1-3)

- 치매라는 병은 지능, 기억 등이 본질적으로 상실되는 병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버리는 병에 걸린다면 그 병명은 뭐라 할까요?
-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는 강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전과 직접 관계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참고 구절을 살피면서 복음이 순수성을 잃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나눠봅시다.(1-2절, 참고/마 7:6, 뱀후 2:22, 눅 16:21, 행 17:21)
-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합니다. 주 밖으로 나가 기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의미를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답해 보십시오.(3절, 참고/고후 11:13-15, 갈 1:8, 갈 5:12)
-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셀 식구들의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적용하기



베델 45주년 특집 (4)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흥기〉

김한요 목사님이 이끄시는 베델의 부흥기는 더 큰 꿈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뜻하지 않게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중 교회의 예배에도 유례없는 큰 변화들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예향

2016년- 예향 사역(예수님의 향기를 담은 음식을 환우들에게 전해드리는 사역)이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이며, 몽골 해외동산, 베델 홈페이지 개편(www.bkc.org), 설립 4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소망부 부모님들을 위한 힐링캠프가 있었습니다.

2017년- 홍보 사역팀 발족(베델의 행사와 프로그램을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에 홍보), 해외 여성 선교사 베델동산, 시니어 효도 관광, 종교 500주년 기념 음악회 및 유럽 순례.



전교인 명랑 운동회

2018년- 제1회 베델인의 밤(한국) & 로마서 강해 출판 기념회, 비즈니스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함께 고민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인 BAM(Business as Mission) 훈련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블 클럽(앱을 통한 성경 통독), 이집트 난민 사역, 국제 동아시아 이사회, BYM 아리조나 단기선교, CIM 클리블랜드 단기선교, KM 공동체 목사를 위한 청지기 재정 교실, 전교인 베델 명랑 운동회, 교회학교 See you at the Pole 캠페인, 터키 BAM 전문인 선교, 추수 감사 주일 공동체 발표회 및 유학생과 함께하는 추수 감사 만찬(예배).



땅끝 선교 바자회

2019년- 어린이 주일을 "교육의 날"로 지정, 본당 Stage 업그레이드, 전교인 피크닉, 본당 2층에 영아부 예배실 신설, 베델 선교 홈페이지 단장(mission.bkc.org), 땅끝 선교 바자회, 제2회 베델 코리아 개최, 신입 임직자 사관학교 시작(새로 임직하신 사역 장로, 안수 집사, 사역 권사 대상), Samaritan's Purse 캠페인 진행.



토요 0부 예배

2020년- 코로나 중에도 김한요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작했고, 베델 교회 앱 출시, 교회 소식을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베델 카

카오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베델 사랑 나눔 프로젝트로 ① 이웃사랑 박스 전달 ② 선교지 긴급구호 현금 ③ 장학 특별현금이 있었고, 교회 학교 웹사이트 오픈, 온라인 VBS, 0부예배 시작(7월 25일(토)부터 본당 앞 코트 야드에서 현장 주일예배를 드림), 수요 특별 기획으로 "프로젝트 아이엠" "베델이 간다" "예수야" 진행되며, M 미팅 선교사를 만나다, 카타콤 기도회, 성탄 찬송 UCC 페스티벌 개최, 아외카페 오픈이 있었습니다.



선교 박람회

2021년- 온라인 선교 박람회 개최, 코로나 숲을 뚫는 부활절 행사(예배), 온라인 등록 새가족 만찬, BYM 고등부 제자 훈련과 대학 진학에 필요한 재정 정보세미나, 중등부 온라인 아침 QT와 Sports & Discipleship, 성경적 성교육 학부모 세미나와 온라인 교사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으며, 미디어 리셋 캠프가 열릴 예정입니다.

베델의 45주년을 되돌아보고 내일을 기대하며

- 김한요 목사

"Go Deeper Go Higher"가 내년의 모토입니다. 교회됨, 크리스천 됨의 기본으로 돌아가 그 깊이를 다지

고자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일환으로 셀사역을 좀 더 강화하고, 미디어 리

셋캠프 같은 훈련을 통해 자녀들이 미디어에 붙들려 있는 시간을 조절하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 등을 구상하여 가족이 소통하는 데 힘쓰려 합니다. 예배는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형

식의 온라인 라이브 예배와 현장 예배를 어른 예배로 한정했지만, 앞으로 아이들 예배까지 확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

니다. 베델은 지난 45년, 성경적으로 교회가 가져야 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

하며, 세상의 빛이 되려 노력해 왔습니다. 45년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오늘, 지금의 노력과

기도들이 다가올 베델 50주년에는 어떻게 쓰여질지 기대됩니다.



베델 사역 / Bethel Classical Academy

개교를 축하합니다!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 개교를 앞두고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베델교회에서 기독교 학교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베델교회를 방문해 보기도 하고 또 가서 말씀을 함께 나

누기도 하면서 긴 시간 동안 베델교회 리더들과 교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한다면 정말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에 가끔씩 기도하면서 더러더러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스물여덟에 결혼해서 자녀 셋을 주께로부터 얻었습니다. 서른세 살에 교회 담임목사가 돼서 교회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십여 년 준비한 끝에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은퇴한 지금에도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 기독교 학교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그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베델교회에 귀한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은조 목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가 개교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 듣는 학교입니다. 정말 탁월한 아이디어로 시작된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훌륭한 인격과 그리고 탁월한 실력,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학교! 너무나 아름다운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전에 기초한 기본을 먼저 확립하고 그 기본 위에 무한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키워가는 것이 학교의 귀한 목표인

것을 압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크리스천, 곧 성경적인 Worldview를 갖게 하고 이 세상에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재로 성장하고 또 쓰임 받는 학교가 된다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번에 새로 시작한 귀한 학교에, 그리고 김한요 목사님과 모든 스태프, 교사, 학부모님 및 모든 학생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준민 목사



옹고 그림이 혼탁해져 버린 세대의 시대적 사명을 위해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교까지 타이트한 일정이었음

에도 기꺼이 시간과 열정을 드리며 수고해주신 많은 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를 통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과 인격에 균형 잡힌 다음 세대가 계속 배출되고, 이 나라의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여 열린 마음과 겸손으로 세상을 섬기는 예수의 제자로 선했던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베델교회가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의 초석으로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가 쓰임 받고, 계속해서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건강하게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주 장로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비전과 가치, 그리고 믿음을 따라 학교를 시작한다는 쉽지 않은 베델교회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아이의 학교를 두고 기도하던

중 베델 클래식 학교를 알게 되었고, 접해보지 않았던 교육 시스템이기에 클래식 학교들을 방문해 보기도 하고 이미 클래식 교육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과도 소통하며 이 학교를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와 신앙의 유산을 위해 가정, 교회, 학교가 한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는 학교의 비전, 베델교회가 모델로



Bethel

Classical Academy

서 지역교회들도 신앙을 바탕으로 둔 교육에 동참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입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학교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김보혜 성도(학부모)



미래의 진정한 성공은 신앙 위에 바로 선 배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사명이요, 하나님과 아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배움이 시작됨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그저 아이들을 울타리 안에 보호하는 단순한 목적이 아닌,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보내는 진정한 리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것, 가정, 교회, 학교가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 아이들을 키우는 것,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였기에 새로운 선택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김한요 담임목사님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베델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환경, 사랑과 사명, 실력을 겸비한 선생님들을 준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현숙 집사(학부모)

칭찬합니다 (2)

칭찬으로 배 부르기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언제나 사랑으로 섬기시는 김관희 장로님을 칭찬하길 원합니다. 치매 환자이신 아내 권사님을 항상 돌보실 뿐 아니라,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전도 폭발 4단계를 Zoom으로 훈련받으실 정도로 장로님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전도 폭발을 위한 모든 복음 제시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하셨고, 전도 대상자를 위한 축복 기도도 잊지 않으신 장로님이십니다. 훈련이 종강을 맞이했을 땐, 4단계 동기생들과 교사님을 사랑으로 섬겨 주셔서, 장로님 덕분에 모처럼 멋진 곳에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장로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장로님께서는 셀목자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전폭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오면서, 그 어느 순간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장로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장로님은 함께 한 모든 분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내이신 권사님을 돌보시면서도, 또 누군가를 섬기고 계실 수도 있는

장로님을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35) 이 말씀처럼 언제나 베풀며 사시는 장로님을 칭찬해 드릴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섬기시는 장로님께 주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김은혜 집사

주님 사랑하니까...

저희 셀식구이신 안경수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진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QR코드입니다. 베델교회는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예배 신청을 하고 QR코드를 받아야만 주일에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QR코드 팀장으로 매주 토요일, 주일을 섬겨 주시는 안경수 집사님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매주 주

일 1, 2, 3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팀원들과 최선을 다해 섬기고 계십니다.

특히 안경수 집사님은 팀장이 되기 전에 베델교회 대면 예배를 위해 이 시스템을 개발하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개발하실 때 짧은 기한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베델교회 대면 예배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밤낮으로 본인의 모든 시간을 들여 시스템을 개발하시는 모습에서 헌신의 올바른 자세를 보았습니다. 개발 이후에도 끊임없이 유지 보수에 힘써 주시고, 오직 대면 예배에 유용하게 사용되던 그것으로 만족하신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안경수 집사님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하며 이 지면을 통해 칭찬합니다.

황사균 집사

교육부/VBS 후속 활동

예수님 찾았어요



신은 한 분뿐인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가짜 진리들로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혼란 속에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금년 VBS는 유일한 진짜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5일간의 여정 동안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짜 보물이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VBS의 후속 활동으로 아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보물로는 아기는 인형, 장난감, 책, 돈 등이 있었지만, 가장 많았던 것은 자신의 사랑, 마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리겠다는 아이도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아이들도 자신의 사랑을 내어드렸습니다.

이번 여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진짜 보물이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보물은 예수님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진짜 보물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이 시대를 담대히 살아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험한 세상일지라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신앙에 발맞추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work out) 중입니다.

장지은 전도사(유년부)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기도: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화평 목장/베델위십/셀: 박경철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도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살채플: 서찬석 목사
 예살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욱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유년부: 장지은(Jieun) 전도사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차은하, 이사무엘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혜경
 오르간: 이정은, 이혜경, 박정연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55차 전도폭발 모집

사역광고

양육반, 베델 제자반 가을학기 모집

전도폭발(Evangelism Explosion)은 국제적인 기독교 사역으로 전교, 전도, 제자훈련, 건강한 교회 성장이란 사명 아래 현재 211개국에서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있으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교회 제일의 관심사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베델교회는 20년 전에 시작된 전도폭발 사역을 통해 수백 명의 훈련생을 배출하였고, 평신도들이 매주 화요일 저녁 함께 모여, 복음 전도의 열기로 교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베델 제자훈련 5단계 중 하나인 전도폭발은 베델인이라면 꼭 참여해야 하는 커리큘럼입니다. 또한 훈련생, 훈련자, 기도 후원자, 3인 1조의 팀워크로 단계별 체계적으로 배우고, 현장 방문을 통해 전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전도폭발을 통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전도자로, 전도자를 키워낼 수 있는 훈련자로, 새 신자들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로, 지역교회 전도폭발 사역을 세우는 지도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 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동역자로 무장될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가슴에 품은 베델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길어지는 팬데믹 속에서 지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 신앙을 갖고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분, 믿음은 있지만 체계적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분, 그리고 깊이 있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 가을 학기 양육반과 제자반을 개강합니다. 베델 교회의 자랑인 양육반은 훈련받은 평신도 리더들이 일대일, 혹은 일대일로 동반자와 함께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베델 제자훈련의 2단계 과정입니다. 리더와의 깊은 나눔과 배움 속에서 삶의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자훈련의 꽃이자 3단계인 제자반은 깊이 있는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김한요 담임 목사님이 집필하신 교재로 훈련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어 양육반, 제자반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성도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순종으로 참여하시길 기다립니다.

▶ 양육반 훈련기간: 9월 7일(화)~12월까지(16주)

오리엔테이션: 9월 4일(토) 오전 9시, 체육관 앞

▶ 제자반 훈련기간: 9월 7일(화)~ 2022년 5월(30주)

오리엔테이션: 반별

▶ 신청 기간: 8월 9일(월)~8월 29일(주일)

▶ 신청 방법: 교회 홈페이지 또는 본당 앞 부스

▶ 장소: 추후 연락(대면 수업 원칙, 변동 가능)

▶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예배 봉사자

강단꽃(8,9월) | 8/22: 박복희, 양석주, 정선경, 최하자 8/29: 정선경 9/5: 김진환, 김홍식 9/12: 김인권, 조혜성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이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김진영)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리판

Bethel Announcements

◆ **주일 및 토요 헬스바 현장 예배 신청 안내** 베델교회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카톡 채널을 통해 발송된 예배 신청 링크와 교회 홈페이지(bkc.org)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예살 홈커밍데이 집회** 오늘 주일 4부 예살 예배 때 "세대에서 세대를 잇는 부흥"이라는 주제로 예살 홈커밍데이 집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8월 22일(주일) 오후 2시 예살 예배, 본당 *Child care(2층 유아실)
강사: 손경일 목사(산호세 새누리 교회 담임)

◆ **2021 베델 심령부흥성회** 새로운 계절과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 각자의 떨려진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의 방향 감각을 붙들고자 "I am put here!"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교인 심령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담임)
일시: 9월 10일(금) 저녁 7시 30분, 9월 11일(토) 오전 6시와 저녁 7시, 9월 12일(주일) 1-4부 예배

◆ **2021 가을 셀목자 수양회**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며 셀사역 재현신을 위한 셀목자 수양회가 열립니다. "재현신으로 리셋!" 셀목자 수양회에 모든 셀목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9월 11일(토) 오전 8시 30분, 본당
강사: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담임)

◆ **Bethel Classical Academy 개교 감사 예배** 23일(월) 개교를 맞이하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개교 감사 예배를 오늘(22일) 저녁 4시에 드립니다.
일시/장소: 8월 22일(주) 오후 4시, BCA 코트야드(체육관 앞 마당)
문의: 강수민 전도사 (949)303-3535

◆ **베델 BAM 훈련 모집** 비즈니스 문화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BAM훈련이 1단계(BAM 이해와 삶 과정), 2단계(리더를 위한 복귀과정), 3단계(프로젝트 및 모의창업 과정)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 등록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9월 9일부터 12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문의: 박지하 집사 (217)390-4107

◆ **양육반/베델 제자반 모집** 가을학기 훈련생들을 모집합니다. (7면 참조)
모집 구분: 양육반(제자훈련 2단계, 16주), 제자반(제자훈련 3단계, 30주)
신청 기간/방법: 8월 9일(월)~8월 29일(주일), 교회 홈페이지 또는 본당 앞 부스
*모든 훈련은 대면(In-Person)을 원칙으로 하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영어가 편한 분들을 위해 영어 양육반, 제자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 **베델 선교: 히즈월 봉사자 모집** 베델 선교가 새로운 발을 내딛습니다. 선교지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 가정의 자녀를 섬기고 교육하기 위한 베델 히즈월 스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ESL)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태현 장로 (949)939-1862

◆ **바이블 클럽 모집** 카카오톡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어드는 바이블클럽을 모집합니다.

모집 구분: - 30일 사복음서 읽기: 하루에 4장씩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에 대한 달간 읽는 플랜
- 16주 성경 1독: 하루에 약 1시간씩 16주간 성경 1독을 하는 플랜
신청 기간/방법: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문의: 황세현 집사 (949)391-9497, life@bkc.org

◆ **55차 전도폭발 모집** 복음의 내용을 배우고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훈련하게 됩니다. (7면 참조)
훈련 일정: 8월 31일(화)~12월 7일(화)(총 15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카타콤 기도회** 9월 2일(목) 오전 10시부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 **초등부 졸업식** 현재 5-6학년 학생들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BYM 중등부로 올라가는 학생들을 축하하며 졸업식에 학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8월 29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체육관(GYM)

◆ **BYM 중등부 여름 수련회** 이번 주말에는 1박 2일간 "The Wilderness(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들의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기간/장소: 8월 27일(금)~8월 28일(토), 교회 비전채플

◆ **Beyond the Blue: 사별 가정 회복(Grief Share)**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처와 슬픔을 이겨 나가도록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치유되며 소망을 갖게되는 회복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초대 합니다!
일정/시간/장소: 9월 3일~12월 3일(총 13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조이채플
문의: 한상섭 장로 (949)735-8472
신청 방법: 교회 홈페이지(<http://bkc.org/connect/family/ministries/>) 또는 본당 앞 부스
*저녁 제공,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 이번 주 토요일에 한국학교 가을학기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강합니다. 미리 발송된 QR코드를 받고, 개강식에 참석할 수 있으며, 비대면 개강식은 당일 오후 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일시/장소: 8월 28일(토), 오전 9시 30분, 본당

◆ **축하해 주세요**
선상균 장로, 선교신 권사의 딸 선예은(Christine)양과 노요셉(Joseph)군의 결혼식이 8월 27일(금)에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홍판수 집사님(홍대원 장로의 부친, 홍정임 권사의 시부)께서 8월 17일(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김봉순 권사님께서 8월 19일(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류옥선 권사님(조준석 집사의 장모, 조하혜 권사의 친모)께서 8월 20일(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기쁨으로



리셋

Beware of Dogs (Philippians 3:1–3)

- 1.** Dementia is essentially a disease of losing intelligent memory. If we were to have a disease that loses memory of God's grace, what will we call that disease?
- 2.** Paul uses strong words "look out for the dogs". That's because this is directly related to our safety. Examine the following verses and share what will happen when we lose purity of the gospel. (vv.1-2, Ref: Matt 7:6, 2 Pet 2:22, Lu 16:21, Acts 17:21)
- 3.** Paul encourages to "rejoice in the Lord". This contains meaning that joy outside of the Lord is dangerous. Define what it means to rejoice in the Lord from v.3. (v.3, Ref:2Cor 11:13-15, Gal 1:8, Gal 5:12)
- 4.** Share stories of rejoicing in the Lord from cell families.

Apply to Life

